

## 국제교류협력 네트워크 조성 3개국 방문

1월 중 유엔 참전국 태국·튀르키예·뉴질랜드 교육당국과 협력 강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생과 교직원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 교육협력 네트워크의 외연 확장에 나선다. 이를 위해 1월 11일부터 '국제교류협력 네트워크 조성 추진단(이하 추진단)' 18명이 태국, 튀르키예, 뉴질랜드 3개국을 방문해 국제교류 교류 확대를 적극 논의한다.

이번 방문은 경기도교육청과 세계 각국의 국제교류협력을 확장하고, 도내 학교가 바로 도입해 활용할 수 있는 해외 우수 교육 자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기획됐다.

방문 국가는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도운 유엔(UN) 참전국 중 3개국(태국, 튀르키예, 뉴질랜드)으로 선정했다. 역사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깊이 있는 교육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추진단은 국제교류협력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학교장, 교사, 교육전문직원 등 모두 18명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각 국가를 방문해 ▲현지 교육청 및 유관

기관 협의 ▲현지의 우수 학교 방문 및 교류 의향 탐색 ▲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 발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이번 방문은 일시적인 교류에 그치지 않고 학교 현장 지원으로 직결하도록 힘쓰다는 점이 특징이다.

추진단이 발굴한 해외 학교와 기관 정보는 경기도교육국제교육원과 공유해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된다. 향후 국제교류를 희망하지만 해외 학교나 기관 탐색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학교에 연결을 지원함으로써 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고 국제교류의 질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추진단은 태국 중등교육청, 튀르키예 이스탄불 교육청, 뉴질랜드 한국교육원 등 주요 거점 기관을 방문해 협력망을 좀처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방문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에 학생과 학교가 중심이 되는 국제교류협력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송민수 기자

## 경기도, 국지도 86호선 와부~화도 구간 13일 개통

경기도, 남양주 화도읍 창현리 ~ 금남리 4.3km 구간, 13일부터 차량 통행 시작

총사업비 927억 원 투입, 굴곡진 위험도로 개선 및 지역 주민 교통 안전과 편의 증대

화도IC 및 국도 45호선 연결성 강화로 경기 동북부 물류·관광 활성화 기대



국가지원지방도 86호선 와부~화도 4.3km 구간이 5년 8개월 동안의 공사를 마치고 13일 전격 개통된다.

화도에서 화도까지 이동시간이 9분 줄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서울~양양 고속도로와 연결돼 경기 동북부 지역의 물류 관광 활성화가 기대된다.

경기도는 2020년 5월 시작한 '국지도 86호선 와부~화도 도로공사'

가 최근 완료돼 남양주시 화도읍 일대의 극심한 교통 정체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월 13일부터 개통한다고 11일 밝혔다.

개통 구간은 국가지원지방도 86호선 가운데 화도읍 창현리부터 금남리까지를 잇는 총 4.3km 길이의 2차로로 총 92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굴곡이 심하고 폭이 좁아 사고 위험이 높았던 기존 도로를 직선 형태의 2차로로 개선해 지역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했다.

이번 개통으로 이동시간이 기존 13분에서 4분으로 줄었으며 도로

안정성도 높아져 사고 예방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교통 안전성 확보로 화도읍 내 상습 정체 구간의 통행 흐름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울~양양 고속도로

화도 IC와의 접근성이 좋아져 서울이나 인근 시군으로의 이동도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도 45호선과도 직접 연결돼 북

한강변 주변 관광지와 지역 산업

시설의 물류 수송 효율이 높아져 지역 경제와 관광산업 활성화도 기

대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이번 개통을 시작으로 경기 동북부 지역의 도로망을 더욱 충실히 구축해 수도권 제1, 2순환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국지도 86호선 와부~화도 구간 개통은 남양주시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도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관 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민수 기자

## 용인특례시·용인시약사회, 약물관리사업 협약



협약에 따라 시는 여러 가지 약물을 정기적으로 복용하거나 약물을 오남용 할 위험이 있는 통합돌봄 대상자 빌굴과 예산을 지원한다.

용인시약사회는 소속 약사로 인력을 구성해 대상자를 방문해 약물을 점검하고, 올바른 복약 방법과 보관 방법 안내, 페의약품 회수 등을 맡는다.

이상일 시장은 "3월부터 의료·요양 통합돌봄이 시작되는데, 이제 약사님들이 통합돌봄 대상의 시민들이 약물을 제대로 복용하시는지, 약물 오남용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을 방문을 통해 점검하고, 시민의 약물 복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게 된다"며 "이는 약사님들이 통합돌봄 대상 시민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는 일인 만큼 너무나도 뜻깊은 활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동시에 여러 가지 약물을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환자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실시된다.

송민수 기자

## 화성특례시,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지킴이 합동점검 및 간담회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9일 고용노동부와 함께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지킴이 합동점검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산업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산업체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중앙정부와 기초 지자체가 협력하는 예방 중심의 산업안전 관리체계를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점검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경기청, 화성산업진흥원 관계자 등이 참석해, 시정 상황실에서 산업 안전지킴이 운영 현황을 공유한 뒤 관내 소재 제조업체를 방문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현장점검에서는 화재·전기·유해 물질·주락 위험요인 등 산업체에

이어질 수 있는 주요 위험요소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산업안전지킴이와 근로감독관이 함께 개선 방향을 안내했다. 점검 이후에는 간담회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 산업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협업 방안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시는 안전관리를 위해 ▲재난대응과, 노사협력과 신설 등 안전관리 전담조직 개편했고 ▲화성 산업안전지킴이 ▲공장지역 화재 위험지도 등 화재발생 시 신속대응 등 사전예방 및 체계적 안전관리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시는 현재 산업안전지킴이를 통해 연간 5천여 개소의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을 점검하고 있으며, 위험요소를 70% 이상 개선하고 있다.

정 시장은 "기초지자체는 산업현장과 정책을 잇는 모세혈관 역할을 한다"며, "기초자치단체장의 실질적 안전관리 권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민수 기자

## 고양시, 美 라스베이거스市와 마이스(MICE)·문화 협력 방안 논의

美·濠 투자사와 AI 인프라 구축 위한 업무협약…첨단기업 유치 연계 추진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8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를 방문 중인 고양시 대표단이 셀리 버클리(Shelley Berkley) 라스베이거스 시장과 면담을 갖고, 양 도시 간 교류 및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류에는 읍면동 돌봄 담당자를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파주지사 돌봄 통합팀 관계자, 서비스 제공기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교류에서는 누구나 돌봄 플랫폼 운영 절차와 현장 적용 방안, 서비스 연계 방법 등을 중심으로 교류와 논의

를 진행했으며,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누구나 돌봄 플랫폼의 도입 목적, 운영 범위, 사용자별 권한 및 주요 기능을 설명하며, 서비스 신청부터 제공과 정산까지 이어지는 7단계 처리 절차를 중심으로 실무 이해도를 높였다.

운영 체계에 따라 읍면동은 대상자 빌굴과 초기 상담, 서비스 연계를 담당하고, 제공기관과 유관기관은 서비스 제공과 사후 관리를 맡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한다. 특히 의료·요양 통합돌봄 분야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 등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해 의료·요양·돌봄 서비스가 현장에서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면담에서 양측은 대규모 국제 행사 운영 사례와 마이스(MICE) 산업

도시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고양시 역시 글로벌 대형 공연을 연이어 개최하고,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전시컨벤션센터인 킨텍스를 보유하고 있어 문화·공연·전시 산업 분야에서 양 도시 간 공동 분모가 크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면담 자리에서는 고양시가 추진 중인 문화·공연·전시컨벤션 인프라 조성 사업 전반에 대한 소개와 이를 기반으로 한 협력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양측은 향후 실무 차원의 후속 논의를 통해 협력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셀리 버클리(Shelley Berkley) 시장은 "그동안 고양시에 대해 잘 알지 못했는데, 이번 만남을 계기로 전시컨벤션·문화·엔터테인먼트 등 앞으로 두 도시 간 흥미진진한 협력 사항들이 많을 것 같다"며 즉석에서 실질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위한 우호도시 결연을 제안하기도 했다.

송민수 기자

## 수원시, 선제적으로 제설제 살포

### 해 블랙아이스 대비 지장물 점검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10일 선제적으로 제설제를 살포해 블랙아이스(도로결빙)에 대비했다.

10일 수원에는 소나기눈이 내리고 강풍이 불었다. 수원시는 10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제설제를 살포하고,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강풍에 대비해 도로순찰을 했다.

오후 4시 30분경부터 다시 눈이 내리자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제설제를 추가로 살포했다.

제설 장비 116대, 인력 226명을 투입해 제설제 총 511t을 살포했다. 10일 오후 8시 기준 수원 지역 적설량은 0.4cm이다.

수원시는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115개 현수막과 게시판에 걸려있던 현수막을 모두 내렸고, 불법 현수막은 철거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제설 작업을 했다"며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 도로 결빙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 차량을 운행할 때 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안양시, 상하수도 요금 인상...

### 2026년 2월 고지분부터 적용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상하수도 생산원가 상승과 노후 시설 정비를 위한 대규모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2026년 1월 사용분(2월 고지분)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고물가 상황 속에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적 현실화 계획에 따른 것이다.

시는 2018년 이후 상수도 요금을 동결해왔지만, 지난 2024년 상수도 시설 개선과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2025년부터 3년간 단계적 인상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25년 1m<sup>3</sup>(톤)당 550원이었던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2026년 1월부터 650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인상은 가정용과 상수도 요금을 상승시킨다. 정부는 2026년 1월부터 650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인상은 고물가 상황 속에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한다.

하수도 요금 역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 인상을 추진 중이다. 현재 안양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약 56.2% 수준에 머물러 있어, 경영 절약화를 위한 요금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올해는 3단계 인상이 적용되는 해로 2026년 1월부터 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합류식 지역의 경우 1톤(m<sup>3</sup>)당 530원(60원 인상), 분류식 지역은 690원(80원 인상)으로 인상되며 일반용, 대중탕용, 유출지하수의 경우도 1톤(m<sup>3</sup>)당 금액이 인상된다. 이번 인상으로 시민 1인당 월평균 수돗물 사용량 6톤 기준 가정용 상하수도 요금은 월 7,740원에서 8,700원(합류식), 9,660원(분류식)으로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안양시는 이번 인상으로 확보된 재원을 활용해 시민의 생활 안전과 직결되는 ▲노후 정수시설 현대화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노후 상수관로 교체 ▲하수도 시설 인프라 확충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 시흥시대야동, 겨울철 대설

### 한파 대비 재난 대응교육

시흥시 대야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월 9일 동행정복지센터 내에서 겨울철 대설·한파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재난 대응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폭설과 한파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동 직원과 기간제근로자 등 전 직원 20여 명이 재난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교육 내용은 제설 장비와 염화칼슘 살포기 사용 요령을 비롯해 도로·보행로 결빙 시 안전 조치 방법, 한파 취약계층 보호 및 한파 쉼터 운영 관리 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제설 장비의 실제 작동 상태를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고 대설 발생 시 초동 대응 절차와 직원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는 등 실전 중심으로 진행됐다.

대야동은 대설·한파 특보 발효 시 제설 작업 원과 제설한 관리 상태 점검, 염화칼슘 보충 여부 확인 등 현장 대응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안부 확인과 한파 쉼터 이용 안내에도 적극 참여해 주민 보호에